

“일상의 안온이 얼마나 사소하고 알팍한 것인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 김신은 씨 소설선집 '귀향' 펴내

신화적 상상력, 역사의 비애, 인간성의 탐구 등 조형 8편 소설 수록...45년 창작활동 결과 오롯이 “생애 마지막 선물일지도...스스로에 대한 위로”



“지난 5년간은 암과 치열하게 싸운 시간이었어요. 소설집 제목을 ‘귀향’으로 내건 이유는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극복했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힘들었죠. 저로서는 이제 노년을 맞이하며 회귀의식 같은 게 있지 않으나 싶어요.”

화순 출신 소설가 김신은(76) 씨가 소설선집 ‘귀향’ (문학들)을 펴냈다. 암 수술과 이후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사유,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보니 ‘귀향’은 김 작가뿐 아니라 예술가를 비롯해 누구나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주제인지 몰랐다.

이번 작품 선집에는 모두 8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지난 2017년 장편 ‘대필작가’ 발표 이후 2년 만에 발간한 작품집에는 45년이 넘는 창작활동의 결과 오롯이 담겨 있다. 모든 작가에게 작품은 모두 자식과 같은 존재일 터인데 그 중에 선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터다.

책을 건네는 작가의 얼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해보였다. 약속 장소인 카페로 들어서는 모습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현실을 초탈한 이의 무심함과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지난 1973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올해로 만 46번째 소설가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 이후 7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이 무기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앞쪽에 수록된 몇 편은 고향에서 신춘문예 당선 전후에 쓴 작품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탐색하고 편력했던 성장소설의 흔적이요. 작가로서의 나에게는 추억과 감회가 서린 작품이죠. 그것들은 어쩌면

내 작품세계의 원형일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김신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말할 때 토속적이고 신화적인 성장소설이라는 평이 뒤따른다. ‘이 무기’와 ‘안개의 소리’ 등이 대표작들로 ‘원형’의 세계가 주는 아우라는 이후의 작품 기저에도 깔려 있을 만큼 작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 작가는 “몇 년은 도시에서 얻은 인상과 기억들을 형상화한 작품들과 정년퇴임 후에 쓴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며 “작가로서의 관심이 역사의 비애로부터 인간성의 어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기와 달리 이후의 소설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접목뿐 아니라 종교문제와 관련 인간성을 탐구한 작품도 적지 않다. ‘토족’과 ‘쟁기머리 산그늘’이 현실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해 ‘베데스다로 가는 길’은 종교를 매개로 인간성의 문제를 파고든다. 또한 최근의 작품 ‘귀향’이 노년의 안주할 거처를 탐색했다면 ‘어느 토론회 풍경’은 현실의 비루함과 쓸쓸함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평론가 김형중은 김신은 작가의 소설에 드리워져 있는 이미지를 ‘인양’으로 봤다. ‘안개의 소리’에서는 물속에서 인양된 남자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고 ‘쟁기머리 산그늘’의 지식묘나 ‘토족’에서 지혜의 아버지가 낚싯대로 건져 올린 두개골이 바로 그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어두컴컴한 저 세월의 강물 밑바닥을 탐구하며 작가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건진 ‘인양’의 이미지는 바로 “일상의 안온이 얼마나 사소하고 알팍한 것인가”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양’과 ‘귀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암 수술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작가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제작 ‘귀향’에는 ‘인양’을 마치고 삶의 끝언저리에 선 이의 심정이 담겨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인의 심정 같은 것이

겠지요. 그러나 그 고향은 다니는 사람조차 없는 텅 빈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귀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말은 오늘의 세대를 떠올리게 한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데없다’고 말하기에는 오늘의 실상이 쓸쓸할 뿐이다. 그렇듯 소설속 노인은 고향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죽음을 맞이한다.

작가는 초기의 신화적이며 토속적인 세계를 통해 소년의 성장소설을 형상화했다면, 작금의 작품에서는 고향에 다다른 노인의 죽음으로 작품 세계를 아우른다. 어찌 보면 작가 김신은이 살아온 생의 기록이자 이야기이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느낍니다. 시간에 실려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이런 책을 내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것이 생애의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김신은 작가는 광주 서석고와 동강대에서 30년 넘게 교직생활을 했다. 지금까지 ‘청동조서’, ‘울지연대기’ 등 네 권의 장편, ‘낯선 귀향’, ‘부처님 얼굴’ 등 세 권의 창작집을 펴냈다. 광주문학상과 화순문학상, 한국소설작가상을 수상했으며 1970년대 문순태·이명환·한승원 작가 등과 ‘소설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30일 조진호 작가 작업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인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을 30일 오후 6시 화순군 능주면 조진호(사진) 작가 작업실에서 진행한다.



성을 통해 주제와 대상을 함축시킨다. 광양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16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광주시립미술관 관장과 광주비엔날레 이사, 광주전남미술인 공동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은 매달 한차례씩 진행되며 지역 작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파 사운드 광주’ 공연 참가자 모집

‘소파 사운드 광주’ 4번째 공연 참가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프라이빗 콘서트’(Private concert)를 내세우는 공연 프로젝트 ‘소파 사운드’는 공연 직전까지 출연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연 장소는 선정된 관객에 한해 개별 공지한다. ‘봄, 꽃 그리고 달콤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처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서구 쌍촌동 ‘여행카페 보아져스’에서 열린 소파사운드 광주 3회 무대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포크 밴드 ‘우물 안 개구리’와 싱어송라이터 로든이 출연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구글 폼(bitly.kr/Aizid)을 통해 하면 된다. 무료 입장이며 공연 뒤 원하는 만큼 기부금을 내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64회 호남예술제 한국무용 발레 입상자 명단

◆한국무용 <심사위원> 김미숙 (조선대 교수) 박선옥 (광주여자대 교수) ◇전통무용 독무 초등부 3.4학년 ▲동상 1 조은비 (유촌초3) ◇전통무용 독무 초등부 5.6학년 ▲동상 1 김을비 (광주운암초5) ◇전통무용 독무 중등부 1.2학년 ▲은상 1 오혜원 (효광중2) ◇전통무용 독무 중등부 3학년 ▲금상 1 송윤아 (상일중3) ▲은상 2 정현정 (수원하나중3) ◇전통무용 독무 고등부 1.2학년 ▲은상 1 김을리 (광주예술고1) ◇전통무용 독무 고등부 3학년 ▲은상 1 이동건 (조선대부속고3) ▲은상 2 김종미 (광주예술고3)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1.2학년 ▲금상 2 박지후 (완도중앙초2) ▲은상 1 신이서 (완도중앙초1)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5.6학년 ▲금상 5 오대원 (광주서초6) ▲은상 4 최원우 (건국초6) ▲동상 2 김보민 (유촌초6) ◇창작무용 군무 초등부 ▲동상 1 김지영 외 5명 (나주초2~6) ◇창작무용 독무 중등부 1.2학년 ▲은상 1 윤정원 (광주경신중1) ▲동상 2 양지현 (금호중앙중1) ◇창작무용 독무 중등부 3학년 ▲은상 1 김연우 (상무중3) ◇창작무용 독무 고등부 1.2학년 ▲금상 2 조은별 (광주예술고2) ▲은상 4 김나연 (광주예술고1)	◇창작무용 독무 고등부 3학년 ▲최고상 1 조은빛 (광주예술고3) ◆발레 <심사위원> 이영애 (무용협회 광주지회장)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은상 1 정조안 (수완초4) 2 황지성 (살레시오초4) 4 김도혜 (조봉초4)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금상 2 엄유진 (건국초6) 7 박지원 (금당초5) 8 이정원 (대지초6) 14 백다원 (살레시오초5) ▲은상 1 안진원 (산정초5) 6 전지현 (광주운암초5) 9 한나 네디치 (본촌초5) ▲동상 3 송수연 (광주송원초5) 10 윤지영 (보로초6) 11 송민찬 (살레시오초5) 12 심정연 (보로초5) 15 서지후 (주월초6) ◇클래식 군무 초등부 ▲금상 1 이정원 외 2명 (초등부연합4-6) ◇클래식 독무 중등부 1.2학년 ▲금상 4 김지영 (운암중2) ▲은상 2 이서원 (효광중1) 5 차혜주 (우산중1) 7 이희진 (광주진흥중2) ▲동상 1 이다은 (산정중1) ◇클래식 독무 중등부 3학년 ▲금상 1 채지윤 (무등중3) 2 박선지 (수완중3) 5 조한울 (우산중3) ▲은상 4 박선주 (수완중3) ▲동상 3 강은재 (광주동성중3) ◇클래식 독무 고등부 1.2학년 ▲금상 2 김민교 (광주예술고1) ▲은상	1 원재원 (광주예술고1) ◇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 ▲금상 1 장서우 (광주광천초1) ▲은상 2 손정민 (고실초2) ▲동상 4 김윤서 (광주삼육초2)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최고상 16 이아인 (동림초4) ▲금상 4 진소정 (효광초4) 9 조민교 (광주광천초3) 18 최윤담 (염주초4) ▲은상 7 김서연 (광주광천초3) 10 기다을 (서일초4) 13 송연지 (광림초3) 14 이주원 (광주산수초4) 15 이서연 (광주삼육초3) 17 김수현 (본촌초3) 19 유현서 (수완초4) 24 유하담 (유촌초4) ▲동상 1 이을 (수완초3) 8 박주희 (큰별초4) 11 김태연 (광주광천초3) 12 이지우 (보로초4) 20 박희원 (유덕초4) 21 최서현 (수완초3) 22 김한결 (유촌초3) 23 김보민 (새별초3) 25 유예린 (광주광천초3) ◇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 ▲금상 3 배우린 (광주송원초5) ▲은상 1 김여원 (광주송원초5) 2 박지우 (금당초6) ▲동상 4 김민서 (고실초6) ◇창작 군무 초등부 ▲금상 1 김여원 외 14명 (광주송원초2~6) ◇창작 독무 중등부 1.2학년 ▲금상 1 서하진 (송광중2) ▲은상 3 김현지 (일곡중2)
---	--	--

※장려상 입상자 명단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